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메가시티'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초광역 메가시티(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정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초광역권 중심 교통망 투자 및 권역별 1시간 생활권 구체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이미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상위 단계인 사·도 행정통합을 내세우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남·대전·충북·세종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인구는 560만 명이다. 충청권의 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충청지방정부연합인 특별자치체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게 될 사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첨단 산업 육성, 관광 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메가시티, 호남권은 각자도생?

환경문제 대응 등 20개에 달한다.

연합 사무소의 위치는 출범 초기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각 사무를 사·도와 함께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있는데, 수도권의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건설기간 6년간 5조 원 이상의 민간자본과 국비 등이 투입되며, 2034년 개통시 대전-세종-청주는 평균 30분 생활권이 돼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홍 충남지사의 메가시티에 대한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충청권특별자치체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성될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 징검다리라 생각한다.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 온 한뿌리, 한집안이다.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통합하게 되면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는 7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초광역적 협력을 목표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호남권 고속도로 남북 2축(영암~광주), 3축(담양~전주·고흥~광주), 4축(세종~완주·여수~순천)의 지정제 구간을 정비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초광역 산업 협력이 이차전지와 에너지

R&D, 지능형 농업생명 분야의 협력 벨트를 3개 사·도가 각각 나눠 구축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실현을 위한 각 사·도별 실무협약체(기획조정실장단장)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방법에는 첫째 가장 강력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둘째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충청권), 셋째, 실행력이 약한 호남권의 경제동맹 협의체 등이 제안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의 공간단위, 즉 예산 배분 단위를 사·단위를 넘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행정적 실행주체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권은 중앙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올해 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 호남권에서 독립하여 3대 특별자치권 중 하나가 되었다. 전북은 호남권에 포함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광주·전남으로 인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전남이 전북에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역시 중앙정부 지원에 광주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호남권에 이제 광주만 남게 될 상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메가시티를 선언적으로 외친다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대형 메가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

수필의 향기



박 용 수  
수필가·동신대학교 교수

아파트 입구에 '장등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나는 반대하지 않는데, 주민 일동 이라니, 어이없다.

그들 땅에 소각장을 짓는다니 조금 미안했다. 하지만 많은 해택도 준다는데 거부할 그들이 부럽고 알찼다.

시골 친구는 전답을 많이 물려받았다. 또 몇 해 전, 한 친구는 번두리에 작은 땅 하나 물려받았다. 기껏 백평도 안 되게 작았다. 그런데 최근 그 땅이 급싸라기가 되었다고 한다. 시골 땅은 여태 5000원도 안 되고 구매할 사람도 없다고 울상인데, 한 친구는 벼라박자가 되었다고 희화낙락거리다.

태초에 빛과 어둠이 생기고 땅이 있었을 것이다. 모든 이의 땅이었으면 탐욕스러운 이들은 말뚝을 박고 줄을 쳐서 자기 것, 사유화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거나 차지하기 위해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전쟁의 시작이자 역사의 시작이다. 가진 이를 지주, 못 가진 사람은 작인인 시절도 있었다. '고

## 땅 한 평

지전'은 이념보다도 휴전을 앞두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영화다. 우리가 지상에 건설하려는 이상은 사람이나 자유라는 이념이 아닌 땅이라는 욕망이란 걸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한정된 공간에서 살지만, 또 한정된 시간을 산다. 아장아장 걸던 아이가 근대 가고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지금껏 지켜보았다. 아니 영원할 것 같았던 박정희부터 3김이 죽는 과정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할아버지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지기까지 시간도 그리 오래지 않다는 것도 보았다.

삶에서 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땅이 타인과 싸움이라면 시간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제마루리 많은 땅을 가졌을지라도 그 딱딱한 땅으로 하루는커녕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땅 한 평을 마련하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몰 샷트 마구 쓰고 산다.

사람들은 늘 이 넓은 세상에 내 땅, 한 평 없다고 투덜댄다. 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곳은 두 발바닥이 딛고 선 땅이고 간혹 앉으면 엉덩이 하나 붙일 땅이었다. 그리고 누우면 고작 1미터 남짓이지만, 언제나 땅은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었고, 단 한 순간도 나를 버리고 기만 한 적이 없었다.

땅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울 때는 땅이 흩날 때이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새들이 날고,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단풍이 들 때, 땅은 가장 아름답다. 땅은 그렇게 도막도막 나눠지는 두부가 아니다. 그렇게 줄을

긋고 철책을 세울 일이 아니다. 노루가 지나가기도 하고 원추리가 몇 해 차지하기도 했다가 굴참나무가 또 몇 년 서 있고, 지렁이가 살고, 새들이 사라고 알을 낳는 곳이기도 했을 때, 땅이다. 그리고 그 농부가 애지중지하는 흙이 생명들에게 소중한 먹거리를 내어줄 때, 땅은 땅으로서 살아있다.

치열하게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그 삶은 소유의 과정이었고 돈이든 권력이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 같다.

이제 한풀 꺾어진 나이다. 방향을 바꿔 조용히 나와 싸울 시간, 나와 대결할 준비를 한다. 그 욕망의 끝, 내가 싸울 대상은 땅, 소유가 아닌 무소유 아닐까. 종착역에 이르면 모두 공수래공수거라고 한다. 그토록 소유하고자 무진 애를 쓰던 이가 내린 참혹한 결론, 무소유. 난(蘭) 한 분 소유하지 않는 말랑말랑해진 흙, 무소유다.

퇴직을 앞두고 나는, 교무실에 내 책상이 놓인 한 평 남짓 공간,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아등바등 살아왔다. 곧 청운의 꿈을 안은 젊은이가 앓을 것이다. 내 자리라고 여태 착각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내 땅 한 평을 비운다.

쓰레기를 소각할 땅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땅은 없다. 쓰레기처럼 소각되는 육신, 영원한 삶도 영원한 소유도 없다. 남은 시간은 나와와 싸움, 시간과 싸움에 진중해지고 싶다. 땅 한 평의 넓이보다 영혼의 넓이를 가능할 줄 아는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기 고



김 정 훈  
동곡미술관 큐레이터

현대인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는 무엇일까?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문화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는 현대인에게 문화와 예술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의 커다란 힘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킨 케이팝과 케이컬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문화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답을 알아보려면 가까운 미술관을 찾아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람으로 창작된 미술품이 여러분을 반겨줄 것이다. 예술작품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깊은 감성을 체험해보면, 예술이 단순한 감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에는 이러한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많다. 스케일이 큰 전시를 보여주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지역미술의 흐름과 미술계 이슈를 선보이는 광주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 전문 전시관인 G.MAP,

## 미술관, 지역 문화의 힘

백화점에 가면 꼭 둘러보는 광주시세계갤러리 등이 눈길을 끈다. 또 트랜드한 감성전시를 여는 예술공간집을 비롯해 무등산 중심사 가는 길목에는 국옥, 우재길, 무등현대, 드영, 의재 미술관이 모여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광주는 미술관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있는데, 미술관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예술을 감상할 기회가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더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더 많은 무대를 가지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시에 문화적 풍요로움을 불어넣는 미술관은 매년 다양한 전시를 펼치며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필자가 근무하는 동곡미술관도 미술부터 유물 전시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후 다채로운 전시를 열려고 있다. 동곡미술관은 지금까지 대형 수조에 채워진 물 위로 반사된 빛의 신비한 움직임을 선보인 미디어아트 전시, 폐품을 활용한 업사이클 아트 전시, 현대미술 전시와 더불어 고구려 금관을 최초로 민간에게 공개한 유물 전시, 고려시대 정자의 아름다운 빛깔을 선보인 고려청자전, 조선시대 분청백자전 등 현대미술부터 고미술까지 광주에서 보기 드문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작가 33인을 초대한 전시를 열어 지역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획했던 김정현, 주재환 등 민중미술의 역사를 일구

었던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학술 세미나, 릴레이 아트북 프로그램과 더불어 평화의 깃발 2000여 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꽃은 체평까지 진행해 세밀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광산경찰서와 호남대 사이, 보문고등학교 초입에 지난 2020년 개관한 동곡미술관의 정식 명칭은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이다. 2017년 '가집보다 쓰임이 중요하다'는 설립자 정형래 선생의 유지를 이어 만들어진 보문복지재단은 유물과 미술품 애호가로 알려진 정영현 이사장의 의지를 반영, 당초 설립자 기념관으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의 불모지인 광산구에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의 동곡미술관을 조성했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은 이제 개관 5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파비아로 전시를 준비 중이다. 20대의 이탈리아 라이징 아티스트 레베카 모차의 개인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는 겨울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봄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와 대한민국 최초의 금속활자를 선보이는 금속공예전 등 다양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의 미술관들은 지역 사회의 문화자산이다. 많은 전시공간이 도심 곳곳에 있는 예향 광주는 미술친화도시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광주의 미술관들이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역에 문화적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 방직 부지 개발사업 이행 약속 차질 없어야

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의 개발사업이 광주시의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논의가 시작된지 4년만에 광주시가 방직부지 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건축 공동 위원회를 열고 복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조만간 고시되면 방직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고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쇼핑몰이 포함된 방직부지 개발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가 벌인 가장 치열한 협상은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환수해 어디에 활용하느냐였다. 이 때문에 심의안에 담긴 공공기여금 5899억 원의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이 들어설 랜드마크 타워 건립 이행보증금 방안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공공기여금은 현물 2899억 원과 현금 3000억 원으로 구분했는데 현금금은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랜드마크 타워 이행보증금은 일반적인 개발사업 이행보증금의 2배 수준인 사업비의 20%(600억 원)로 정했다.

광주시는 막대한 공공기여금과 이행보증금을 강제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했다고 자평하면서 현금 기여금을 상생 협이나 교통 관련 대책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소송 등으로 얼룩진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경험삼아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약속해왔다. 방직부지 개발사업도 이런 원칙과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시장의 소신이 담긴 결과일 것이다. 사업자의 공공기여금과 이행보증금 약속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 기대한다.

## 매년 극한호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시급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극한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가 침하되고, 건물이 파손됐으며, 드넓은 평야가 물에 잠겼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 시간당 강우량이 50mm를 넘는 경우 극한호우라고 하는데, 올해는 광주·전남은 물론 충남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100mm를 넘는 곳이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극한호우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오송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40%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남은 10%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여름 충북 청주지역에 사흘간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7월15일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무려 14명이 사망했다. 참사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으로 지정했다. 진입차단시설은 폭우 등으로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한다.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재난 예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대상 전국 지하차도 402곳 가운데 진입차단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으로 40.5%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주는 설치대상 8곳 중 7곳이 설치됐지만, 전남은 설치대상 10곳 가운데 단 1곳에만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남은 올해 안에 7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니,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재난과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해 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계획대로 반드시 설치하고, 미설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남은 장마 기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반적인 종교 행위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기도를 들 수 있겠다. 사전적 의미의 기도(祈禱)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 간절히 염원하는 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이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40일) 시기에 기도에 힘쓴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하안(夏安居) 시기에 스님들이 외출하지 않고 수행을 한다.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약 3개월간 한 곳에 머물며 기도 정진한다.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인 일종의 금식 기간이다. 마호메트가 쿠란을 계시받은 것을 상기하며 낮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5년 기도를 올린다.

최근 중심사 주지 중현스님이 펴낸 에세이집 '기도의 이유'(불광출판사)는 기도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스님은 "소통과 감응이라는 종교적 신앙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수행으로 나아가갈 때, 기도는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나아가 신행생활을 관성적으로 하기보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자기회할 때 본래 신행생활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이기에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말 못할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들이 현실의 고난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기도는 종교 행위이면서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교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상당 부분은 기복신앙적인 면과 연관돼 있다. 물질적인 풍요와 출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상적인 내용이다. 후회스러운 과거,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가 그런 기도를 부추기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소소한 일상에서 수행 아닌 것이 없고 신행생활 아닌 것이 없다"는 중현스님의 말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새삼 일깨운다.

/ 박성진 문화부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洸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규범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